

한동훈 '헌신' 요구...여주류 '힘지도전·불출마선언' 이어질까

한동훈 '불출마' 결단에 당내 긴장감 고조 원희룡·박민식 등 장관 출신 힘지도전 선언 압박 강도 높아질 듯...“결정 속도 빨라질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자마자 당내 의원들에게 '헌신'을 요구했고, 자신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천과정에서의 고강도 인적 쇄신을 시사한 것으로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론'이 재부각되면서 힘지도전 선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에서 힘지도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먼저 힘지도전을 선언한 이른바 '스타 장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원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거취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명룡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는 원 전 장

관의 차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힘지도전 분류되는 인천 계양구에서 이 대표와 접전을 벌이거나 이길 경우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원 장관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당내 의견도 많았다. 당시 당에 '희생 헌신안'을 내밀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원 장관의 결정에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당초 알려진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에 선을 그으면서 출마지역을 당에 백지 위임하기도 했다.

그간 분당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이 출마를 고려하는 지역구로 알려지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관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지만을 원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힘지도요

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말로만 헌신이다, 희생이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결심을 한 2주일 전부터 확실하게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의원직을 포기한 것을 두고, 당의 명운을 걸고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을 비례대표 순번에 두고 전국적인 지도도를 활용해 후방 지원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격전지에 도전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전날 취임식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라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뛰든지 다 할 것이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결단으로 당내 주류 세력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가 '진윤(진윤석열계)·중진 희생론'을 제시했지만, 유일하게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한동훈 체제'에서는 진윤 실세들을 향한 희생 압박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당내 의원들과 맺은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개혁의 칼을 휘두르기도 쉬운 위치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공천과 관련한, 출마와 관련한 당의 절차, 또 본인 스스로의 진퇴 여부 등에 대한 결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특집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의 불출마 결정에 대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국가 운명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문제는 지금 (총선이) 100여일 남은 이 과정에서 또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



선집중에 출연해 "(한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며 "원칙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당내에도 걸고, 불체 포퓰리즘 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도 확실한 차별화를 보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면 기자



광주시의회 올해의 의정대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김용임, 박미정, 박희율, 안평환, 채은지 의원.

광주시의회, 올해의 우수 의정대상 5명 시상

광주시의회 올해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김용임, 박미정, 박희율, 안평환, 채은지 의원 등 5명이 최종 선정돼 27일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 주최로 수여하는 상이다.

김용임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조례안' 등을 제정했고, 장애인 체육인들의 취업을 위해 혁신도시의 공기업과 손잡고 취업에 앞장서 올해 20명의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취업에 성공했다.

박미정 의원은 '통합돌봄 지원 조례'와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수 제·개정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학동참사 이후 대책과 산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을 했다.

박희율 의원은 교육 환경개선과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했고,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요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고 심의해 집행부를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제정 등 입법 활동도 활발했다는 평이다.

안평환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민원 ombuds만 도입 요구와 전·일방 부지 개발을 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민원해결에 헌신했다.

이슬비 기자

송갑석 "통합선대위 조기구성해야...통합 위한 시간 안 남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합이 헌신"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들을 포함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헌신 요구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적었다.

송갑석 "이재명 사퇴 전제로 하는 헌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세 총리 모두 참여하는 통합선대위 조기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통합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해 앞으로 남은 100여 일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구성된 통합선대위 안에서 당내 여러 시각과 입장이 자유롭게 소통한다면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우리는 지금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있는 형국"이라며 "통합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통합을 위한 행보임이 분명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10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유리한 국면에서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남아있는 100일은 여전히 긴 시간이다.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상황관리, 위기관리 전략은 다름 아닌 통합"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통합과 함께 헌신 또한 총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당내 여러 세력들의 시각과 입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는 통합이야말로 최고의 헌신"이라며 "친명이든 비명이든 '원칙과 상식'이든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세 분의 총리 모두 한 걸음씩 더 다가가야 한다"며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는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열 걸음이라도 다가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권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